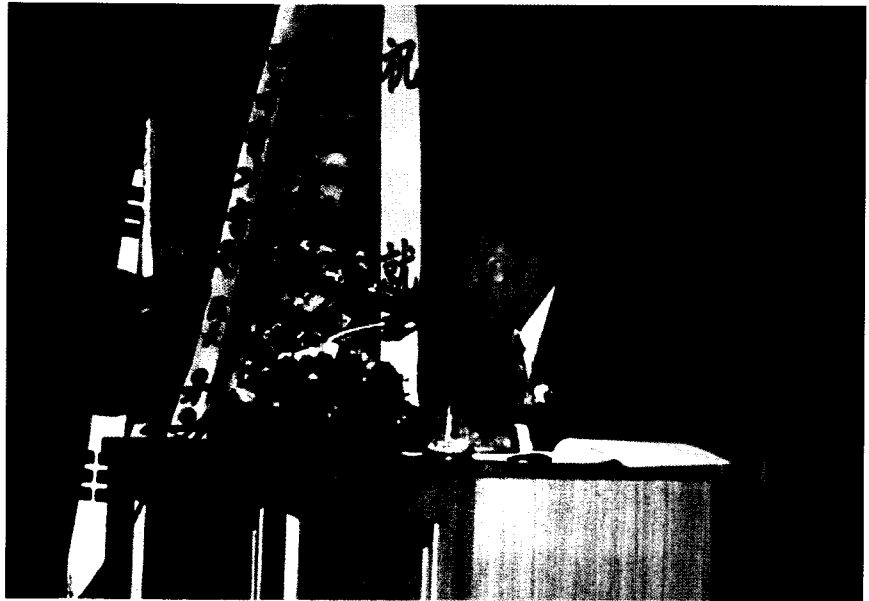




PHOTONICS MOVEMENTS

- 제 10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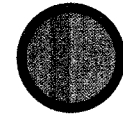
한국광산업진흥회 제10회 정기총회 및 제4대 회장 취임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4월3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강박원 광주광역시의회위원장, 임충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지경부 전자정보산업과 이승우 과장 등 내외귀빈, 광산업육성지원기관장과 중소기업지원기관장 은 물론 광산업체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광산업진흥회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제4대 신임회장에 허영호 LG이노텍(주)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신임 허영호 회장은 52년생으로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과를 졸업하고 77년에 금성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 사장까지 승진한 입지전적 인 인물로 30여년을 LG그룹에 몸담아왔으며 글로벌 CEO상, 은탑 및 금탑산업훈장을 수상 하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경영인으로 취임사에서 "국내 광산업의 종합적 인 발전과 회원사의 공동이익 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한국광 산업진흥회의 국내외적 위상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착수하는 광산업육성 3단계 사업과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광산업체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돌아가도록 하고 올해 10월 국내(광주)로 유치해 개최하는 15개국 국제광산업협회 연례협의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산업육성지원기관협의회 운영 활성화는 물론 2010년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10 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년 이후를 조망하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비전 2020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축사에서 "한국광산업진흥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허영 호 회장님께 각별한 축하"를 드린다며 "광산업체의 권익보호와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한 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PHOTONICS MOVEMENTS

- 제 4대 회장취임식



아울러, "정부도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조명 LED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LED 붐의 직접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2004년부터 주력산업인 광산업 LED와 광통신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광주가 LED생산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공공시설 LED 보급사업 등을 통해 시장수요창출은 물론 LED분야 원천 기술개발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제10회 정기총회를 통해 2008년도 수입지출결산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등을 비롯하여 정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PHOTONICS MOVEMENTS

- 광주테크노파크 10주년 기념식
- LED 체험홍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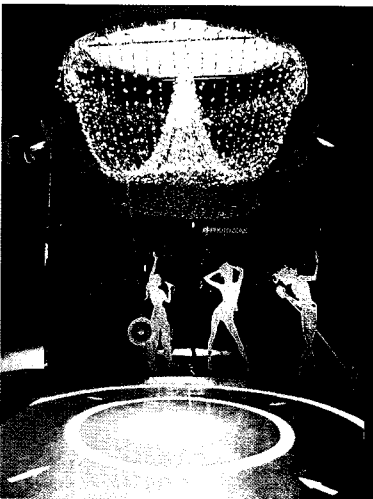
광주테크노파크 10주년 기념식 개최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월 24일 광주 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산·학·연·관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테크노파크는 1999년 2월 개원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산재한 인력, 장비, 사업 등의 혁신자원을 집적하고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술의 공동개발과 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힘써왔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의 육성, 산학연 연계협력 촉진,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역량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생산도시' 광주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고도화 실현,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광(光), 디지털 정보기전,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산업 등 4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지역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3만여명의 단지조성과 313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해 탄탄한 지역 제조업기반을 구축해 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성취한 10년, 도전한 1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까지 ▲비즈니스 Creator ▲산학연 Coordinator ▲Good Supporter ▲Global Leader 등 '2C+2G'의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침이다. 남한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0년동안 기업지원과 지역산업발전 측면에서 많은 것을 이뤄냈다." 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전을 위해 'Global Support, Bright Future' 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의 밝은 미래를 창출해 내는 선도자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주거·사무공간 zone



빛·이벤트공간 zone

LED 체험홍보관 구경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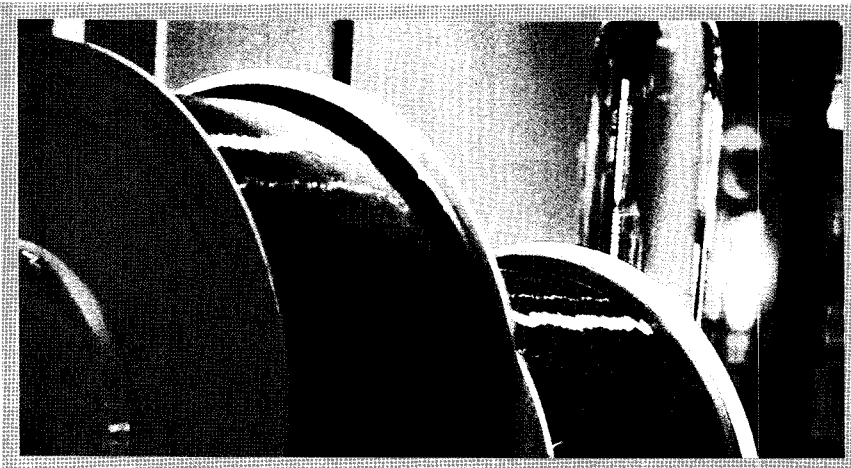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LED산업 활성화 및 관련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LED조명 및 LED관련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일부 체험설비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LED체험홍보관을 조성하였다. LED체험홍보관은 실내 330㎡, 실외 165㎡의 규모로 총 7개 테마를 갖는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존구성은 기본 이해공간 zone, 도시공간 zone, 공업·복지 공간 zone, 상업·미래문화 공간 zone, 주거·사무 공간 zone, 빛·이벤트 공간 zone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LED보안등을 비롯한 LED경관조명제품과 태양광LED도로표지판 등으로 구성된 옥외 LED정원과 LED가로등 및 보안등 성능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정도 규모의 LED체험홍보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초로 시도된 것이며 특히 PNS(Photonics Nerve System)방식이라는 신개념 구동·제어 시스템을 채택하고 개별 LED소자를 신경망처럼 연결하여 각 LED소자를 통합제어·컨트롤을 통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체험홍보관 내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은 기존 LED제품의 활용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HOTONICS MOVEMENTS

- 광통신 토탈솔루션 컨소시엄발족



광통신 토탈솔루션 컨소시엄발족

-미국 IT광대역 광통신망 시장 집중공략-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에서는 미국 오바마정부의 뉴딜사업인 IT광대역 광통신망구축 사업에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광통신업체로 토탈 솔루션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해외마케팅지원 계획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 토탈 솔루션 컨소시엄구축」 전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미국,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년말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IT분야 연계 광통신인프라구축 사업을 뉴딜정책으로 추진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규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 투자계획이 다분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대규모 광통신 인프라구축에 소요되는 광통신부품 공급체계가 단품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인 토탈 솔루션을 요구하는 국제시장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자사에서 생산하는 단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국내 광통신업체들의 제품을 패키지와하고 수동·능동부품업체와 시스템 네트워크 업체들을 연계시켜 토탈 솔루션 공급이 가능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현지 시스템 업체들과 공동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루트를 확보하고 이러한 컨소시엄을 활용해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지역까지 수주활동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인 광통신망프로젝트 전문 수주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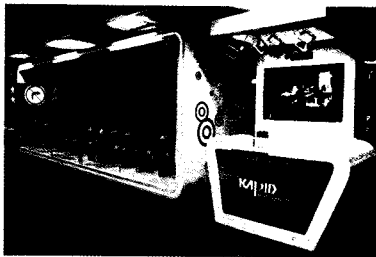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이를 위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광통신 전문전시회인 OFC 2009 전시회에 26개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한국광산업진흥회의 미국현지 해외 마케팅지원거점업체인 Vitex를 통해 미국내 유력 광통신 시스템업체인 Alcatel Lucent, JDSU, Occam Networks 등과 공동협력 컨소시엄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공동협력 마케팅 네트워크구축 MOU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1월부터 이미 물밑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토탈 솔루션 공급이 가능한 국내 광통신분야 선도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OFC 2009 한국 공동관 단장을 맡아 실무적으로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국제적 금융위기가 우리 광산업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타겟 시장별로 현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춘 시장공략 다각화를 통해 실질적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광산업체간의 컨소시엄 구축을 더욱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PHOTONICS MOVEMENTS

- 광산업전시홍보관 새단장
- 광산업 애로사항 신고센터



광산업전시홍보관



정보자료열람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전시홍보관' 확대 새단장

한국광산업진흥회 1층에 구성·운영하고 있는 광산업전시홍보관이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를 끝내고 1월 12일 새롭게 오픈했다.

기존에 홍보관 내부에 자료실과 인터넷카페를 같이 운영하였으나 자료실과 인터넷카페를 한국광기술연구소합사무실로 이동시키고 홍보관 내부를 기존 212㎡에서 약 268㎡로 확장하였다. 기존의 홍보관은 광통신과 LED zone으로 단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광통신부품, 광통신시스템, LED, 광케이블/소재, LD/LASER, 광학기기, 광산업비전 zone 등 7개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빛, 도시, 산업을 모티브로 홍보관 내부를 단절없이 컬러와 빛, 그래픽화 함으로써 빛으로 하나가 되어 미래 광산업을 만들어감을 표현하였다. 자료실과 인터넷 카페에 있던 자리에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은 R&BD과제 참여업체의 성과물을 전시하였으며, 향후 광산업 신기술 개발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전시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광산업전시홍보관은 光으로 하나되는 공간으로 광산업의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펼쳐진다. 관람자는 정해진 동선을 통해 내부 공간의 변화를 느끼고,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LED와 광산업 관련 다양한 제품과 영상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광주광산업 클러스터의 미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광산업전시홍보관에 설치된 광산업제품은 319개 품목 946개 제품에 달하며 전시홍보관을 개설한 이후 방문한 국내외 광산업관련 참가객은 11,231명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산업전시홍보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 애로사항 신고센터 운영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국내 광산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서의 위상정립 및 광산업체의 공동이익도모와 유대강화를 통해 광산업활동 전반을 망라하여 광산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대정부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관행으로 인한 애로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다수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또는 반복민원으로서 통상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항, 광산업체의 경영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청사항 등을 접수받아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신고사이트 : 본회 홈페이지(www.kapid.org)메인화면 좌측 상단

⇒ 바로가기 클릭 : http://www.kapid.org/problem/pku_problem_info.jsp

■ 신고전화 : 062-605-9612

■ 업무담당자 : 기획관리팀 김현호 차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 한국광학회 공로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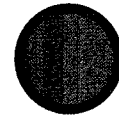
한국광학회(회장 이범구)는 지난 2월 12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광학회 제20회 정기총회에서 한국 광산업 육성·진흥에 기여한 공로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최하여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광학회에 위탁하여 개최하고 있는 국제광기술컨퍼런스(IPTC) 개최 지원을 통해 광기술전문 국제컨퍼런스로 발전시킨 공로를 치하하는 뜻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한 학술상에 김승우(KISTI), 성도 광과학상에 김대식(서울대), 논문상에 김광택(호남대), 논문장려상에 김건덕(광운대), OSA Student Prize에 조형욱(홍익대), 기술상에 강현서(ETRI), 감사패에 남일광학기기, 이오테크닉스, 삼중과학 등 광산업체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공로상에는 전영복(한국광산업진흥회), 김청민(서울시립대), 박승한(연세대), 황보창권(인하대) 등이 수상하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 LED업체 금융지원 업무협약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 · 우리은행 · 기술보증보험간 금융지원업무협약 체결—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는 최근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을 비롯하여 LED조명건축물시범조성사업 및 LED표준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는 LED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전략적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LED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특별금융지원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협약을 통해 한국광산업진흥회는 LED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 금융지원대상인 LED업체 추천·확인 및 보유 기술 평가를 시행한다. 주요 금융지원 내용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종추천과 기술평가를 완료한 LED기업을 대상으로 R&D기업, 제조업, 무역업, 신용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하여 기존 여신한도외에 추가로 최대 3억원까지 특별운전자금 지원 및 최대 0.3%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종추천만을 받은 LED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자금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10~5% 확대한 최대 85~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최장 5년, 시설자금은 최장 10년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과 변동금리, CD연동형 금리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3월 23일 현재 CD연동형의 경우 최저 5.18%까지 제공한다.

금번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이 더해진 국내 LED관련 중소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분야인 LED산업 육성 및 보급정책에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도 지원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LED업체 경영 여건개선 및 국내 LED산업 경쟁력 강화의 한축을 이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PHOTONICS MOVEMENTS

- 한국광학회 공로상 수상
- LED업체 금융지원 업무협약체결

